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2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9)	봉헌 (210)	성체 (153)	파견 (209)
---------	---------	----------	----------	----------

### 미사 전례 예절

-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가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깨끗해야 합니다.  
 만일 대죄(큰죄 - 주일과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례하지 못한 경우와 십계명과 교회법을 어긴 경우)가 있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영성체 전에 반드시 먼저 고해성사를 통해 사제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데 고해 성사를 안하고 영성체 하는 것 또한 성체께 대한 모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데 미처 고해 성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영성체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소죄(일상적인 죄)는 미사 시작 전례에서 <고백의 기도>를 바치고 사제의 사죄경으로 죄를 용서 받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5/27	유 요한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김바오로
6/3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김바오로
6/10	이 마틸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김바오로
6/17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김바오로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50	\$92	\$6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2	손 아놀드/ 손 쟈마
5/5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6/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5/12	김 마론/ 김 헬레나	6/16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5/19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23	이 요한/ 이 마틸다
5/26	황 가롤로/ 전 제노베파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6 월 7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6 월 10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다음모임은 6 월 17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 월 25,26 일

성령 쇄신 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주부터 받습니다.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No refundable reservation fee (개인당 \$20)를 참가 신청 시 미리 내셔야 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말씀의 이삭

하느님 께 사랑 받으셨죠?

-최희 마리나 | 아나운서-

지난해 청년 성서 모임을 통해 창세기와 탈출기를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 방송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기에 비슷한 고민에 서로 공감하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인간관계의 허탈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끝나버렸을 때 드는 허무함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시간과 정성의 낭비라 여겨졌고,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준다 하여도 관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슬펐기에,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주었던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 하나요?” “네,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리나 자매님이 준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 전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랑과 마음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상대를 거쳐 하느님께 그대로 전달되었고 하느님은 이미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니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저에게도 다시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설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주면 너도 나에게 이만큼을 돌려줘야 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내가 이것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상처받을까 두렵지 않아. 하느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실 거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주는 것도 마음을 나누는 것도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내어주는 것에 행복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태오 복음서 제22장에서는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대표하는 두 가지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느님은 분명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내려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상처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손해를 볼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느님께 묻곤 합니다. “하느님, 제 사랑 잘 받으셨죠? 사랑합니다.”